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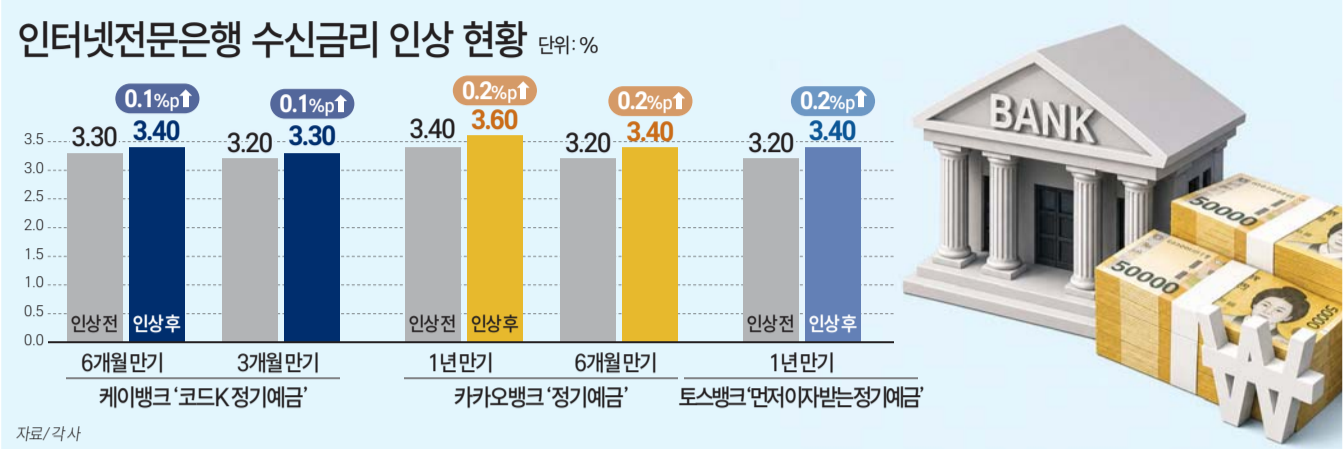
증시 변동성 확대... 투자 대기성 자금 급증 '4년만에 최대'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722조, 전월비 7.6조 ↑
정기예금 평균 최고금리 연 3.16%
은행, 수신금리 높여 자금이탈 방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으로 한 달 새 7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잔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파킹통장 등 수시 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달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722조2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조635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6월(당시 약 725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 관망세 짙어지자 요구불예금 '쑥'

요구불예금이 증가한 배경은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4000선이었던 코스피는 올해 2월 5000선을 돌파한 뒤, 지난 달에는 9000선을 넘었다가 최근 8000선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파킹통장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으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기업과 금융회사의 여유자금도 요구불예금 증가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를 이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확대하면서 계약 선금 등을 은행에 일시 예치한 데다, 증시 호황으로 수수료와 운용수익이 늘어난 증권사들도 여유 현금을 은행에 맡긴 영향이다.

금리 영향도 컸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단기 예금에 묶어두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경쟁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유입된 대기성 자금을 장기간 확보하고 향후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8개 은행의 36개 정기예금 상품 평균 최고금리는 연 3.16%로 집계됐다. 최고금리가 연 3% 이상인 상품은 21개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기본금리만 연 3%를 웃도는 상품도 13개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수신금리 인

상에 적극적이다. 케이뱅크는 만기 1년 미만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10%포인트(p) 인상했다. 6개월 만기 금리는 3.30%에서 3.40%로, 3개월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30%로 상향 조정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정기예금 등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3.40%에서 3.60%로, 6개월 만기 금리를 연 3.20%에서 3.40%로 각각 0.20%p씩 상향 조정했다.

토스뱅크는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3.20%에서 3.40%로 0.20%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며 선제적으로 수신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신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l115@metroseoul.co.kr



저축은행, 3분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 확대

14개 저축은행서 추가상품 출시
중·저신용자 자금난 해소 일한
차주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ChatGPT가 생성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관련 이미지.

주요 저축은행이 이달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건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공급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전성·수익성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부터 다수의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본격 출시한다. 현재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총 6곳만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며 "지금 여러 곳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추가 상품 출시 시점을 하반기로 제시했지만

다. 금리는 연 5.9%~15.27% 사이로 형성됐다. OK저축은행이 5.9%~15.26%, SBI저축은행 7.9%~15.2%, KB저축은행 6.9%~15.2%, 신한저축은행 7.2%~15.2%, 예가람저축은행 6.8%~16.2%, 한국투자저축은행 8.18%~15.26%다. 대출 기간, 대출 최소한도 등 세부 요건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라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중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안정대출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상품이다.

여신업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달 출시를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문제로 출시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확

대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연 소득 1배수 초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 규모가 연 소득을 넘어 추가 대출이 거절됐던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수요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다만, 건전성·수익성 우려도 제기된다. 중금리대출 확대로 부실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부담과 더불어 수익성 하방 압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부동산 경기 부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수원 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 일부 저축은행을 두고 "올해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도금대출과 더불어 중금리대출에서의 추가 부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고객기반 확대 강조 '와이드앤딥' 메시지

정상형 신한은행장은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고객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행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 모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Wide)이며, 이는 미래준비의 출발점이다"라며 "고객에게 지속 선택받기(Deep)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경영전략 회의에서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와이드앤딥(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고객관리 및 영업지원 솔루션 고도화를 통한 핵심 고객기반 확대 ▲신한 '슈퍼SOL'과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접점 확장 ▲AI 에이전트(Agent) 등 은행 본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업무 생산성 제고를 하반기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차원의 고객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7일 정식 출시한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슈퍼SOL'을 중심으로 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5개 그룹사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전체로 고객기반을 확대해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올해 서울 전세가격지수 5.10% ↑... 세입자 부담 커져

전국 상승률 2.46%, 수도권 3.82%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재계약 대비 큰 폭으로 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일 기준 연초 이후 2.46% 상승했다. 전년 동기(0.09%)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이 3.82% 올랐고, 서울은 상승률이 5.10%에 달했다.

직방이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

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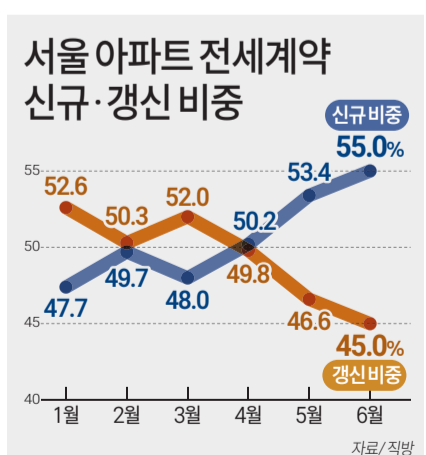
분석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세보증금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대상은 전용 59㎡형과 84㎡형이다. 월세 계약은 제외했다.

서울은 수도권 가운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전용 84㎡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규 계약은 현재 시세가 즉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도 상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세입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벌어졌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재계약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은 신규 계약 비중이 1월 52.6%에서 6월 45.0%로 낮아진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



자료/직방

서 55.0%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